

재독 한인여성의 생애체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노동이주여성-되기' -*

양 영 자

(경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재독 한인여성의 생애체험을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주여성의 고유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재독 한인여성 A씨의 생애사를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A씨의 생애는 자신을 “식민화” 하는 ‘다수자’의 표준적인 기준에 균열을 일으켜 ‘탈영토화’ 하는 ‘노동자-되기’, ‘이주자-되기’, ‘여성-되기’ 등의 ‘배치체’로 구성된 ‘노동이주여성-되기’의 과정으로, 이러한 ‘노동이주여성-되기’도 끊임없이 새롭게 또 다른 ‘배치체’로 구성된 ‘소수자-되기’의 유동적인 과정이며, ‘차이의 정치’, ‘되기의 정치’ 과정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해 사회복지실천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이주여성, 재독 한인여성, 재독 한인간호사, 생애(구술)사 연구, 들뢰즈·가타리, 되기 이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국경을 가로 지르는 이주여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거시적 차원으로부터 미시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양영자, 2012; 이효선·김혜진, 2014), 이주의 주동기와 관련시켜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에 따른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집단에 대한 거시적(이수자, 2004; 황정미, 2009; Hochschild, 2000; Sassen, 2000; Parreñas, 2001) 및 미시적(김민정 외, 2006; 김현미, 2006; 2010; 이수자, 2006; 이혜경 외, 2006; 김민정, 2007; 김용찬, 2007; 김현미 외,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1690).

2008: 나혜심, 2009: 김영옥, 2010: 양영자, 2010: 2011: 2012: 이효선·김혜진, 2014: Constable, 2003: Freeman, 2005: Thai, 2005: Yang, 2014) 차원에서의 논의는 모두 가족과 국가, 글로벌 차원의 희생자라는 타자성이 강조된 객체화된 관점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이주 이후의 삶에 집중된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은 노동이주여성이나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어느 한 범주나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범주만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그 어떤 독특한 고유성(peculiarity)을 갖는 존재이다. 다시 말해, 이주여성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성과 보편성뿐만 아니라 개별성과 구체성까지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개별자로서, 일반성을 지니는 구체성, 즉 보편적인 고유성을 갖는 특수자이다(김광명, 2005). 아울러, 이러한 이주여성의 고유성은 이주 이후의 삶만이 아니라 이주 이전의 삶까지도 포괄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세상은 Deleuze와 Guattari(1980: 유재홍, 2007: 김효, 2008: 김명주, 2009: 김은주, 2014: 김재인, 2015)에 의하면, 어떠한 지배적인 기준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주류에 편입된 다수자(majoritarian)와 이러한 다수자로부터 탈주하여 무언가 다른 고유한 존재로 변이된 과정에 있는 사람, 즉 소수자(minoritarian)로 나뉜다. 소수자는 모방에 그치는 몰적인(molaire)¹⁾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분자적인(molaiculaire) 차원에서도 변이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수자는 집합이나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수자-되기의 끊임없이 유동적인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이 다수자에 의해 선규정된 타자성이 강조된 범주들만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고유성을 갖는 존재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한 재독 한인여성을 사례로 하여 그 생애체험을 다수자의 외부자적 관점(etic)이 아닌 내러티브 주체의 내부자적 관점(emic)에서 분석함으로써 이주 여성의 고유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개별사례 속에서 드러나는 일반성, 즉 ‘구체적인 일반성(das konkrete Allgemeine)’(Rosenthal, 1995: 2009)²⁾을 분석하는 데에 적합한 Rosenthal의 생애사 연구방법으로써 접근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재독 한인여성의 생애체험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주여성의 고유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들뢰즈·가타리의 ‘되기(devenir)’는 『천개의 고원(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enie)』에서 제시된 이론으로, “존재와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 삶에 대한 총체적 해설서”(김효, 2008: 228)이

1) ‘몰(mole)’은 평균화되고 균일화된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전체이다(김효, 2008: 231).

2) 구체적인 일반성은 구체적인 개별사례 속에서 드러나는 일반성으로, 생애사 연구가 추구하는 일반성의 개념이다. 생애사는 한 개인의 삶의 이력뿐만 아니라 그 이력과 관련된 개인의 행위 및 그 행위에 내포된 사회성까지도 포괄한 구성체이다. 따라서 한 개인의 생애사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경험 유형들은 그 자체로서 일반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이희영, 2005: 양영자, 2011).

다. 즉, 각자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자신의 고유한 삶을 긍정하며 “창조적으로”(김재인, 2015)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생 길라잡이이다.

Deleuze와 Guattari(유재홍, 2007; 김효, 2008; 김명주, 2009; 김은주, 2014; 김재인, 2015)에 의하면, 세상은 다수자(다수성, 다수적인 것)와 소수자(소수성, 소수적인 것)로 나뉜다. 다수자(다수성, 다수적인 것)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나 규범 등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주류에 편입된 사람이고, 소수자(소수성, 소수적인 것)는 이러한 표준적인 기준으로부터 탈주하여 어떤 다른 존재(상태, 것)로 변이된 사람이다. 다수자(다수성, 다수적인 것)에는 예컨대 남성(남성적인 상태, 남성적인 것)이나 어른(어른 상태, 어른적인 것), 백인(백인 상태, 백인다운 것), 정주자(정주자 상태, 정주자다운 것) 등이, 또한 소수자(소수성, 소수적인 것)에는 여성(여성적인 상태, 여성적인 것)이나 아이(아이적인 상태, 아이적인 것), 흑인(흑인적인 상태, 흑인적인 것), 이주자(이주자적인 상태, 이주자적인 것) 등이 포함된다. 즉, 다수자(다수성, 다수적인 것)나 소수자(소수성, 소수적인 것)는 양적인 수나 크기가 아니라, 권력관계와 연관된 상대적인 개념이다.

겉모양과 관계되는 변화는 거시적 차원과 조응하는 물적인 변화일 뿐이고, 존재의 차원과 관계되는 변화는 미시적 차원에 조응하는 분자적인 변화이다. 물적인 차원의 변화는 단지 무언가를 흉내 내고 닮는 모방에 그칠 뿐이나, 분자적인 차원의 변화는 물이라는 폐쇄계의 테두리를 걷어내고 탈영토화하여 각각 따로 움직이는 되기의 변이이다. 즉, 미시적인 차원에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변이되는 분자적인 변화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이 일어나는 유동적인 되기의 과정으로, 어떤 존재(상태, 무언가)가 다른 어떤 존재(상태, 무언가)와 결합하여 질적으로 변화되는 생성의 과정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층위에서 출발한 되기는 사회적 층위의 ‘소수자-되기(becoming-minoritarian)’로 확대된다. 소수자-되기는 이항대립적인 이분법에 의해 규정된 다수자의 위치에서 탈영토화하여 차이성과 관계성을 그 동력으로 하여 다른 무언가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소수자-되기는 남성이나 어른, 백인, 정주자 등 다수자의 반대항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류의 이분법적인 구분에 저항하며, 기존의 표준적인 틀로 정의된 여성이나 아이, 흑인, 이주자 등의 반대항을 모방하거나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한다. 즉, 소수자-되기는 여성이나 흑인, 이주자로 복제되는 물적인 차원의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 백인과 흑인, 정주자와 이주자 등의 이항대립적인 이분법을 해체하여, 그 차이성과 관계성을 동력으로 하여 기존의 소수자와도 차이가 나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적으로 생성하는 분자적 차원의 변이 과정이다. 따라서 소수자-되기는 기존의 여성이나 아이, 흑인, 이주자 등의 소수자와도 차이가 나는 여성-되기, 아이-되기, 흑인-되기, 이주자-되기 등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배치체(asssemblage)’를 구성하는 투쟁의 과정이다(김재인, 2015).

한편, 고유한 존재로서의 사람은 일반성과 개별성, 보편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수자인 개별자로서, 대립적인 것과 모순적인 것이 함께 공존하는 일반성을 지니는 구체성, 즉 보편적인 고유성을 갖는 존재이다(김광명,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고유성은 다수자의 표준적인 틀을 탈영토화하여 이항대립적인 차이성과 관계성을 그 동력으로 하여 생성하는 소수자-되기의 과정 속에서 구성될 수 있으며, 일반성을 지니는 구체성을 띠는 점에 동의하여, 한 재독 한인여성의 사례를 소수자-되기의 관점에서 재구성함

으로써 이주여성의 고유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국경을 가로 지르는 이주여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거시적 차원으로부터 미시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양영자, 2012; 이효선·김혜진, 2014), 주로 이주의 주동기와 관련시켜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라는 이분법적 관점에 따른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거시적 차원(이수자, 2004; 황정미, 2009; Hochschild, 2000; Sassen, 2000; Parreñas, 2001)에서는 '국제성별분업(international gendered division of labour)', '글로벌 돌봄체인(global care chain)', '생존의 여성화(feminization of survival)' 등의 현상을 중심으로, 미시적 차원(김민정 외, 2006; 김현미, 2006; 2010; 이수자; 2006; 이해경 외, 2006; 김민정, 2007; 김용찬, 2007; 김현미 외, 2008; 나혜심, 2009; 김영옥, 2010; 양영자, 2010; 2011; 2012; 이효선·김혜진, 2014; Constable, 2003; Freeman, 2005; Thai, 2005; Yang, 2014)에서는 '에이전시(agency)', 즉 행위주체성과 '혼성성(Hybridity)' 등의 현상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자의 논의는 주로 노동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로써 희생자성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 속에서, 그리고 후자의 논의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로써 희생자성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나 혼성성까지도 강조하는 경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논의에서는 전자의 논의에서보다 이주여성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후자의 논의에서도 전자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이주여성이나 결혼이주여성 모두 복합적인 층위의 희생자라는 타자성이 강조된 객체화된 관점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고, 이주 이후의 삶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은 노동이주자로 이동하였으나 이주생활 과정에서 결혼이주자가 되기도 하고, 결혼이주자로 이동하였으나 노동이주자가 되기도 하며, 두 범주 모두에 해당되는 존재가 되는가 하면, 그 외 여러 다른 범주에 해당되는 존재로 변이되기도 한다. 즉, 이주여성은 선규정된 타자성이 강조된 특정 범주만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그 어떤 고유성을 지니는 개별자요 특수자(김광명, 2005)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자로서의 이주여성은 이주 이후의 삶만이 아니라 이주 이전의 삶까지도 포괄한 이해가 요구되는 고유한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이주여성의 고유성에 대한 연구가 타자성이 강조된 객체화된 관점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주 이전의 생애까지도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재독 한인여성에 대한 연구(이수자, 2006; 김용찬, 2007; 나혜심, 2009; 양영자, 2010; 2012; 이효선·김혜진, 2014; Yang, 2014)는 위의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질적 접근에 따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이주생활 전반에서 주체성이 발현되고 있음을 강조한 연구(이수자, 2006; 김용찬, 2007), 가정경제의 주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남성의 권리가 우선되도록 배려하는 가정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나혜심, 2009), 가치관과 정체성이 이주 이후뿐만 아니라 이주 이전에도 혼성성(hybridity)을 띠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연구(양영자, 2010), 젠더의 구성과정이 대체로 성분리적 젠더로부터 성중립적 젠더로 전환되는 과정이 되고 있음을 분석한

연구(양영자, 2012), 노동이주의 삶이 노동의 역사가 아닌 미완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신과의 충돌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환기시킨 연구(이효선·김혜진, 2014), 이주생활을 포함한 전 생애가 인정투쟁을 통한 정체성 찾기의 과정이 되고 있음을 분석한 연구(Yang, 2014)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타자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주체성과 행위성의 측면까지도 비중 있게 논의하고 있고, 나아가 이주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이주 이전의 삶까지도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의 지형을 어느 정도 확장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또한 이주여성을 연구대상자로 객체화하는 문제로부터는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에서만 탈피하는 데에 그치고 있고, 이주 이전의 삶을 포괄한 심도 있는 분석 또한 여전히 일부의 연구들(양영자, 2010; 2012; 이효선·김혜진, 2014; Yang, 2014)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고유성에 대한 연구가 타자성이 강조된 객체화된 관점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주 이전의 생애까지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 재독 한인여성의 생애체험을 내러티브 주체의 내부자적 관점에 따른 질적 사례연구로써 접근하여 이주여성의 고유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주요 자료는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narrativ-biographisches Interview)’ 및 2편의 에세이이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독일 현지 자택에서 2015년 7월 23일 대략 9시부터 19시까지 실시된 것으로, 다과와 점심 식사를 드는 시간에만 잠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에 걸쳐 실시되었다. 녹음된 인터뷰 시간은 총 6시간 30분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식인 Rosenthal(1995; 2009; 2011)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주이야기’와 이야기 통합적 ‘후질문’ 단계로 나뉘는데, 전자는 다시 ‘이야기 요청’과 ‘자기프레젠테이션’의 하위 단계로, 그리고 후자는 ‘내부적(intern) 질문’과 ‘외부적(extern) 질문’의 하위 단계로 나뉜다. 이야기 요청은 “전 선생님의 생애사에 학문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사에 대해 지금 떠오르는 경험부터 이야기해주십시오. 인터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은 선생님께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 끼어드는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야기를 들으며 중간에 메모를 할 것이고,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 마무리되면 그 때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여쭙볼 것입니다.”로 시작하였다. 자기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구술이 되는 순서에 따라 연구참여자가 사용한 언어로 표제어만 기록하는 방식으로 메모를 하였다. 이어, 후질문 단계에서는 메모해 둔 표제어들에 입각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구술된 순서대로 내부적 질문을 하였고, 지금까지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연구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된 점에 대해 외부적 질문을 하였다. 이후, 더 이상의 구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든 때에 인터뷰를 종료하였다.³⁾ 2편의 에세이는 재독한국여성모임 회원들이 독어와 한글로 집필한 생애체험에 대한 2편의 도서(KFD et al., 2011⁴⁾; 재독한국여성모임, 2014)에서, 본 연

구참여자가 기록한 것들이다.

위의 인터뷰와 에세이 자료 역시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즉 첫째, ‘생애사적 데이터의 연속적 분석(sequenzielle Analyse der biographischen Daten)’, 둘째, ‘텍스트분석과 주제적 영역분석(Text- und thematische Feldanalyse)’, 셋째, ‘체험된 생애사의 재구성 과 연속적 세밀분석(Rekonstruktionen der erlebten Lebensgeschichte und sequenzielle Feinanalyse)’, 넷째,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의 비교분석(Vergleich von erzählter und erlebter Lebensgeschichte)’ 등의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⁵⁾

4. 연구결과: ‘노동이주여성-되기’

재독 한인여성 A6)씨의 생애7)는 자신을 “식민화” 하는 ‘다수자’의 표준적인 기준에 균열을 일으켜

- 3) Rosenthal의 인터뷰 방식에 대한 학술지상의 소개는 이 연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게 서술한다. 그러나 연구윤리의 엄격성과 관련한 서술은 제한된 지면상 본 연구를 위해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번호: 1040460-A-2015-014) 심의를 거쳤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 4)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 간행된 2쇄본의 에세이를 분석자료로 하였다. 그러나 1쇄본은 이미 2006년에 간행되었음을 밝힌다.
- 5)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형성(Typenbildung)’의 단계는 본 연구가 단일사례를 분석한 생애사 연구인 바 생략되었다. 단계별 분석방법에 대한 자세한 서술 역시 여기에서는 지면상 생략한다.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엔 단계별 분석방법을 소개한 양영자(2013)의 논문을 참고하라. 그 외, 본 연구결과는 ‘의사소통적 타당화(kommunikative Validierung)’(Klüver, 1979; Heinze and Thiemann, 1982; Mayring, 1990: 105-106 재인용) 과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시되었음을 밝힌다. 의사소통적 타당화는 연구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제시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의 해석은 자신의 주관적인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소통적 타당화 과정이 타당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외에도 Mayring(1990: 103-106)은 타당성 확보 기준으로 ‘연구절차의 기록(Verfahrensdokumentation)’, ‘논증적 해석(argumentative Interpretationsabsicherung)’, ‘규칙성 도출(Regelgeleitheit)’, ‘연구참여자의 일상생활에 다가간 연구’(Nähe zum Gegenstand), ‘삼각화(Triangulation)’ 등을 들고 있다.
- 6) 이하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A씨라는 익명화된 명칭을 사용할 것(에세이 저자명은 A씨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실명으로 표기함.)이다. 그 외 차후에 사용하게 될 지명 등에 대한 부호도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익명화할 것임을 밝힌다.
- 7) A씨의 생애가 구술된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및 2편의 기록된 에세이의 내러티브 구조는 다음과 같다. 2015년에 실시된 인터뷰는 노동이주여성으로서 사회운동에 적극적이었던 활동을 중심으로, 가족사는 보조적인 수준에서 구술된 구조이다. 1남 1녀의 자녀들에 대한 구술도 일정 부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자녀가 A씨와는 달리, 자신들의 생애와 관련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데에는 사전 동의를 한 바가 없고, 자녀들의 권리를 존중·보호해야 하는 것은 모인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며, 연구자 또한 이러한 자신의 모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그보다 1년 앞서 출판된 한글판 에세이는 “내 정체성의 또 다른 이름, 이주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주여성”이외에 노동자의 정체성까지 내포된 노동이주여성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이 중심이 된 구조이다. 여기에서는 2010년, 재가노인돌봄센터의 기관장으로서 퇴임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자신의 일부의 직업사가 기록되고

‘탈영토화’ 하는 ‘노동자-되기’, ‘이주자-되기’, ‘여성-되기’ 등의 ‘배치체’로 구성된 ‘노동이주여성-되기’의 과정으로, 이러한 ‘노동이주여성-되기’도 끊임없이 새롭게 또 다른 ‘배치체’로 구성되는 ‘소수자-되기’의 유동적인 과정이며,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김은주, 2014), ‘되기의 정치(politics of becoming)’(김재인, 2015)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노동이주여성-되기의 과정을 주제적 중요도의 비중에 따라 노동자-되기, 이주자-되기, 여성-되기로 나누어 생애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되기’

A씨의 노동자-되기는 ‘어른’과 ‘출세자’ 등으로 표상되는 다수자의 표준적인 기준 및 이에 영향을 받아 내재화한 ‘출세자 지향’의 다수성으로부터 ‘탈주’하여 일련의 소수자-되기가 구성되는 과정으로, 그 구체적인 과정은 ‘출세자 지향’, ‘출세자 탈영토화’, ‘노동자-되기’의 유동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1) ‘출세자 지향’

A씨의 출세자 지향은 유년기로부터 비롯되어 독일로 이주하여 대학예비학교를 졸업하여 대학 공부를 목전에 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른과 출세자 등으로 표상되는 다수자의 표준적인 기준 및 이에 영향을 받아 내재화한 다수성의 “굴레”에 얽매인 채 출세자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1948년, 2명의 언니에 이어 3녀로 태어난 A씨에게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굴레”란 가정과 학교, 마을의 생활공간에서 체험한 전후(戰後)의 집합적인 절대 빈곤과 이러한 체험 속에서 자리한 “열등감”으로, A씨 내면에서 작동된 내부적 “사슬”이었다. 유년기의 A씨는 당시에 큰 인기를 누렸던 “B 박사”로 불린 한 유명 라디오 방송인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 “A 박사”라고 불렸다(Cho-Ruwwe, 2011: 30). 따라서 A씨는 실제로 “박사”로 상징되는 계층사다리 상부에 위치한 출세자로 커나겠다는 꿈을 은밀히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꿈은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인 A씨에게는 학교 모범생이 곧 사회 모범생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었던 당시였던 바,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린 A씨의 꿈은 다수자의 표준적인 기준에 따른 출세지향적인 속성을 띠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자의 기준으로부터 탈주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가령, “담임선생님”과 이웃의 “어떤 남자”로 표상되는 어른의 ‘이중성’으로부터 탈영토화 하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는 퇴적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6년의 1쇄본 및 동일한 내용이 2쇄본으로 간행된 2011년의 독일판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생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의 2쇄본 독일판 에세이는 한글판(2014)의 원본이 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독일어로 옮긴 제목으로 기록된 것으로, 노동이주여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아들을 고대하는 부모의 열망이 담긴 남(男)자가 들어간 이름과 연관시켜 성찰되고 있는 점이 앞서 언급한 직업사 이외에 한글판과 다른 것일 뿐, 그 외의 내용은 한글판과 거의 동일하다. 본 연구의 결과인 ‘노동이주여성-되기’는 바로 이러한 내러티브 구조로 구성된 3개의 구술되거나 기록된 생애사로부터 도출한 A씨의 고유성인 것이다.

있다. A씨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쯤” 교육청이 주관한 백일장 대회에서 1등을 하여 수상식에 가면서, 자신의 옷을 “허술”하다고 여긴 “담임선생님”의 반강요로 같은 반 부잣집 아이의 “세라복”과 바꿔 입고 외관을 꾸며야 했던 적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사람이 기거할 만한 오막살이라고도 할 수 없는 “움막” 같은 곳에서 나오면서도 옷차림만은 말쑥하게 신사복으로 차려 입었던 이웃집 “어떤 남자”의 그 이중성을 목도해야 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담임선생님”과 이웃집 “어떤 남자”로 표상된 어른은 어린 A씨에게 “내용”보다 “형식”을, 진짜보다 가짜를 내세우는 이중적인 다수자로서 반면교사의 전형이 되었다.

“내가 글도 잘 썼어요. 그 당시. 그때가지고 시내에 저: 어린이날 되면 뭐 백일장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가서 내가 일등을 해서 상을. 국민학교 4학년 때 쯤 됐었을까. 일등을 해서 인제 저: 교육청에서 상을 준다고, 상을 주려. 가야 된다고 인제 우리 담임선생님하고 내하고 가는데. 내 옷이 굉장히 허술했던가 봐요. 그: 담임선생님이 아니, (한 여아가) 세라복을 입고 있었어요. 세라복을 벗겨서 나를 입혀서 날 데리고 갔어요. 엄: 그 당시 그렇게 음: 어우: 뭐 이래야 되는 건가. 갔었었는데. 지난 후에 지금 생각하면: 아: 얼마나 사람을 엄: 모멸시키는 거예요. 나 있는 나 대로를: 그대로 하지 않고 나를 꾸며서 간 거예요.(2050-2069)⁸⁾” “이웃에서 정말 천막치고, 가마니, 문이 없어서 가마니 그냥 둘둘 가마니 내려서 문으로 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하루는 학교 가는데 보니까. 어떤 그런 집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신사 양복을 짝: 빼입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짝 매고 그 집에서. 그 그 흠 끄집어 나오면서. 나와서는 딱 서서 탁탁 털고 막 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찌면 저런 집에 살면서 저렇게 입고 저렇게 나오지? 어린, 어린 나이에. 어: 그 그 모습이.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아: 그게 아: 지금까지 내 살아가는 데도 계속 되고 있어요. 독일말로 그 Authentizität(진실성). 내 처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 나의 어: 근본 그게 어딘가 보고, 그기 맞게 내가 처신하는 거. 그게: 그게 나한테 내 살아가는 데 아:주⁹⁾ 중요한 그 지표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어디 남을 위해서 어디 무슨 형식을, 형식을 차린 게 아니라. 정말 어: 속을, 내용을 어: 중시를 하고 사는 거.”(2088-2107)

빈곤한 가정형편 때문에 은밀히 품었던 A씨의 꿈은 중학교 때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모범생들’에게 흔히 기대되었던 것처럼, 대학을 나와 “교사”가 되는 매우 현실적인 진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즉, “대학 가야 출세를” 한다고 여기는 주변의 기대대로 A씨도 그러한 가치를 내재화한 출세 지향적 중학생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어는 공부 잘했으니까. 그 당시 여자로서 직장 하면, 내가 됐으면 학교 교사가 됐을 거라고. 우리 집안 다들 교사집안들이거든((웃음)). 삼촌, 사촌부터 해서 전부 다. 어: 그: 딸 다섯인데. 우리 집에 다들 학교 교사로 일하는. 나 혼자서만 그랬거든요. 어: 암: 그니까 그 그 당시 이제 아: Akademiker(학자), 대학, 대학 가서. 대학 간, 대학 가야 출세를 하고.”(2556-2560)

8) 이는 인터뷰 필사본 2050-2069 줄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의미한다.

9) “아:주”는 “아”를 길게 말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A씨의 빈곤한 가정형편은 “박사”나 “교사”로 상징되는 계층사다리 상부에 위치한 출세자가 아닌, 그 반대항으로 여겨졌던 “노동자”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강요했다. 부모가 함께 운영하는 구멍가게뿐만 아니라 모의 삶바느질까지 동원된 생활을 하였지만, “일수꾼” 앞에서 찢찢매는 빈곤으로부터는 여전히 헤어 나오지 못하였고, 이에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빛지지 않고 살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로 경제적 자립에 민감성을 갖추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즉, A씨는 모범생이었음에도 대학진학으로 이어지는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 취업이 일차적인 목표인데다 학비와 기숙사비까지 전액 무료인 간호고등학교에 진학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는 빈곤한 가족을 조속히 도울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조치라는 공감대가 “담임선생님”으로 대표되는 주변 어른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A씨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았던 때문이기도 하였다. 물론 A씨도 간호고등학교 이외에는 달리 진학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미 각오는 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나 A씨는 정작 간호고등학교에 진학하여서는 출세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갇힌 채 1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학교공부를 소홀히 하는 생활을 하였다. A씨는 인터뷰 시 이와 관련하여 출세자로 상승할 기회는커녕 “노동자”의 길만이 활짝 열려진 삶에 매우 큰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결국 여러 교사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다시 학업에 열중하였고, 늘 그러하였듯 간호고등학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졸업하였으며, 이후에는 예정된 대로 간호사로 취업을 하였다 (Cho-Ruwwe, 2011: 30). 즉, 거부하고 싶었던 노동자의 세계로 발을 딛게 되었던 것이다.

“대학가야 출세를 하고 아: 그게 잘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건데. 나는 어: 간호고등학교에 갔으니까 대학가는 길이 딱 막혔고, 아: 간호고등학교에 가니까 인문교육이 별로 없었었어요, 직업, 직업교육이 중점이었으니까.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대학 간다는 생각을 하고, (...) 공부를 안 했죠, 아: 그때 1학년 동안 안 하고 그러니까.”(2562-2570) “학교 선생님, 교사들도 그저 그러니까, 선생님, 교장이 날 불러가지고는 너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또 나를 거기 학교 보낸 중학교 담임선생님부터, 나를 불러서 너 왜 그러느냐고((웃음)), 걱정을 하고 그러가지고, 그런데 또 착실하게 또 들어가서 했어요.”(2575-2577)

그러나 남성일로서 간주된 “바깥일”, 즉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여성임에도 가족부양에 큰 몫을 하는 ‘아들 노릇’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부모의 인정까지도 받고 있음을 인식하였다(Cho-Ruwwe, 2011: 31-32).¹⁰⁾ 따라서 일찍이 “노동자” 길에 들어선 자신의 간호사 생활에 절망하기도 하였지만 긍정적으로 의미부여하고자 하였고, 서울까지 올라가 마취과정 연수를 받으며 양호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도 열의를 내었다. 즉, A씨의 ‘인정투쟁(Kampf um Anerkennung)’(Honneth, 2012)은 실질적인 ‘만이 역할’을 하는 자신의 가족부양 능력에 대한 부모의 인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전문가적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직업적 욕구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무언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욕망’도 여전히 꿈틀거렸다(Cho-Ruwwe, 2011: 32). 따라서 독일이주는 빈곤한 가정형편과 연관된 강제적 성격의 ‘때문에 동기(Weil-Motiv)’만이 아니라, 미래

10) 이 부분의 해석은 의사소통적 타당화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보완된 것으로, “바깥일”과 “아들 노릇”은 이때 연구참여자가 사용한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의 개인적인 욕망과 연관된 ‘하기 위한 동기(Um-zu Motiv)’(Schütz, 1971a: 77-100; 1971b: 3-21; 양영자, 2013: 292)¹¹⁾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인 점은 독일이주자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간호사라는 “노동자”의 위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골레”가 되었던 간호사라는 “노동자”의 위치가 역설적이게도 달리 살 욕망을 실행할 기회로 작용했던 것이다 (Cho-Ruwwe, 2011: 32).

(2) ‘출세자 탈주’

1970년 10월, 간호사로 독일에 이주한 A씨는 이후 ‘손님노동자(Gastarbeiterin)’로 불리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간호노동이 끝난 여가시간에는 출세자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문화생활, 즉 영화를 보거나 각종 운동을 하였고 외국 여행까지 즐기며 “노동자”의 삶으로 여겼던 생활과는 거리를 둔 삶을 살았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 외곽에 위치한 근무처나 기숙사에서는 시내에 드나드는 교통편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개방대학까지 다니며 독일어 공부에 열의를 내었다(Cho-Ruwwe, 2011: 33-34). 즉, 예의 그 출세자 지향은 이주 후 “노동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3년간의 의무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주경야독의 삶을 위해 C지역을 떠나 베를린으로 이동하였는데, 한국에서와는 달리 대학교육까지도 공공교육이 이루어졌던 독일의 교육복지시스템이 뒷받침된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출세자 지향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던 측면도 있었다. 이후 낮에는 병원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밤에는 대학예비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살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A씨의 목표는 다수자의 기준에 따라 계층사다리 상층부에 오르는 출세자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밟아야 할 예정된 코스였다.

“이제 3년 지나니까 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독일어를 구성, 구사를 할 수 있는데. 아: 지금 내가 다시 한국 가긴, 가버리긴 아깝다. 여기에 있는, 여기서, 여기서 제공하는 사회 그: 복지 그거를 나도 이용하자.”(474-476) “그 시골에서 3년 일하다가. 그 다음에 3년: 끝나고 나서. 이제 베를린으로 갔었어요. 베를린으로 가서 7년 살았는데. 베를린, 베를린에 가면서 아: 내가 베를린 가서는 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그 있는 그: 학교에다가 Berlin-Kolleg(대학예비학교) 그게 Berlin-Kolleg 거기에 입학시험을 치고.”(457-460) “내가 70년대에 와서 73년에 어: 끝나고 나서 73년 말에 베를린으로 갔거든요. 가서 있으면서 74년 초에 시험을 쳤는데. 아: 됐다고, 시작하라고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 야간,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에는 야간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465-467)

그러나 A씨의 이러한 인생계획은 대학예비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달라졌다. A씨가 접한 대학예비학교는 한국의 주입식 학교에서처럼 출세에 필요한 지식을 일방향적으로 전달하여 서열화 하는, 공부를 위한 공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다. 진보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교육을 표방하는 교사들 및

11) Schütz(1971a: 77-100; 1971b: 3-21)에 의하면, ‘때문에 동기’는 과거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관찰자인 연구자가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범주이고, ‘하기 위한 동기’는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예측적인 행위와 관련된 행위자의 주관적인 범주이다(양영자, 2013: 292).

학우들과 더불어 각국의 여성해방 운동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학습한 것들을 현실 속에서 실행하는, “참 인생 공부”가 이루어지는 곳이자,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한 가치관과 규범에 대해서도 “간격”을 두고 재성찰하도록 자극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즉, 대학예비학교는 A씨에게 ‘눈이 바로 뜨인 곳’, ‘처음으로 제대로 사회화되고 정치화된 곳’,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성찰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따라서 A씨는 대학예비학교 과정을 거치며, 자신이 추구해온 출세자 지향의 삶이 개인적인 “처지를 더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에 그칠 뿐, 자신에겐 또 다른 “굴레”가 된다는 자각에 이르렀다(Cho-Ruwwe, 2011: 34; 조루베국남, 2014: 49-52). 즉, 출세자 지향의 삶은 다수자가 되려는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일 뿐, 자신을 옹아매는 또 다른 “굴레”가 된다는 자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하면서 그 열:마나 그 등수 때문에 차이가 나고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어: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 와서 느낀 게. 내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공부를 아: 아: 잘 한 거는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 한국사회에서: 어: 나의: 내, 내 처지를 더 상승시키려는: 그런 그게 교육도 그랬었고,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사회도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또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성적이 좋았었는데. 아 음: 중학교: 고등학교: 간혹고등학교를 가고 나서 그때 내가 느꼈는 게. 나는 대학을 가서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가정상황이 되지 않아서 못 가, 못 가게 됐으니까. 안 간 그런 걸 여기 와서 생각하면서. 아: 내가 다른 한편으로는 어: 내가 공부를 잘한 것이 나한테 그런 그게 있기도 있었지만. 언젠가는 어느 한계에 지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어: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그: 저: 뭐예요. 굴레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는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아: 니가 아니다. 그런 어떤 역설적이지만 그런 그게 심리적으로 있어서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성찰, 자학을 하게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특히 이제 Berlin-kolleg에서 공부하면서 더 그게 느껴졌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그니까 가서 공부해서 내가 성적 따는 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과정의 중요함. 아: 아: 그걸 거기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참 그 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내가 참 인생 공부를 한 것 같아요.”(611-630) “그 학교가 몰랐었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그 학교가 굉장히 어: 좌파, 좌익계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 좌익계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거는, 가서 보니까 대부분 교사들이 그: 저: Pädagogik(교육학) 공부 끝나고 나서, 학교 끝나고 나서, Lehramt(교직과정) 다 하고 나서. 결국은 어: 좌익 그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 징계, Disziplinarstrafe(징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495-499) “세미나 방법이며 학교 거기서 내가 참: 거기서 내가 사회화, 정치화: 그거를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아: 한국 사람이 나 혼자뿐이었는데. 가서 우선 3년 독일어 가지고: 줌: 바로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힘들고, 특히 정치, 정치, 사회 용어 어: 이런 거 나한테 새로운 것도 있었었지만. 나한테 내 속으로 터부시된 그런 것도 있었었다고. 우리가 오기 전에 얼마나 소양교육을, 3년 받고 왔어요. 반공, 반공 개념, 반공요, 그거를 그 안에서 내가 다: 다시 한 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2학기에 그: 그 Disziplinarstrafe 공무원, 그 교사들 징계, 그 사람들이 좌익으로 일했기 때문에 공무원 되지 않은 징계, 그에, 그 법에 대해서 데모를 했다고, 학생들이, 그게 내 사회운동의 첫 그거였었어요.”(516-523) “내가 엄:(3) 한국에서 받은 교육,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 그런 사회적으로 받은 그런 가치관이 라든가 여성으로서의 그: 그 위치, 자세, 뭐 규범 그런, 그게 전부 다 다시 한 번 음: 간격을 두고 나를 살피게 된 게 학교과정에서 시작을 해서.”(898-900)

따라서 A씨는 대학예비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출세자 지향의 삶으로부터 탈영토화 하여, 자신이 위치한 노동자의 지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다수자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노동자로부터도 “간격”을 두고 탈주하는 ‘노동자-되기’를 시도하였다.

(3) ‘노동자-되기’

A씨의 노동자-되기는 대학예비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들어가 삶과는 괴리된 ‘강단식 지식’을 배우는 대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살아있는 지식’, ‘삶 그 자체’를 공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처럼 출세자 지향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맞게” “충실”하게 살기로 결정한 것이 노동자-되기로 나아가는 생애사적 ‘탈주선(une ligne de fuite)’이 되었던 것이다.

“나의 어: 이 사회적 위치는 어디이고, 어: 그 다음에 엄: 여기에 어 충실해서 어: 고기에 맞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제 그러니까 일하다가. 이제 아: 이제 난 이제 간호사로 고만하고, 실은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은 가서 대학공부 해서 한다고. 그: Abitur(대학입학자격시험)를 봤잖아요. Abitur 어: 끝날 때 다들 이제 내가 간호사니까 당연히 의대 가서 의사 될 줄 알았지만, 나는 그 생각은 전혀¹²⁾ 없었어요. 의사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었고.”(2118-2123) “이제 여성모임에서: 다른 어: 그 사회활동을 한 거죠. 애들: 여성모임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여기에 운동을 하고, 그 당시 또 직장에서 있었던 사람,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활동도 하고, 엄: 그: 내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거를 대학가서 학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일상생활에: 내 그거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2137-2140)

이후, A씨의 삶은 의대에 들어가 의사라는 출세자가 될 것이라는 주변 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출세자를 포함한 다수자에 의해 분류된 반대향으로서의 노동자의 삶에 균열을 일으키며, 그러한 삶으로부터도 끊임없이 새롭게 탈영토화 하는 노동자-되기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탈영토화는 정치·사회·문화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한 의식화 작업이 이루어졌던 대학예비학교에서의 ‘반간호노동자·반학생’으로서 살았던 삶(1974-1977), 출세자의 반대향으로 인식되었던 “노동자”로부터 탈주한 독일 내 한인 간호노동자로서 산 동시에 국내 여성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연대한¹³⁾ 간호노동자로서 살았던 삶(1977-), 국내 농촌지역 농업노동자의 보건개선을 위해 독일로부터 파견된 개발원조자(Entwicklungshelferin)¹⁴⁾로서 살았던 삶(1984-1987), 이후 독일로 다시 돌아

12) “전혀”처럼 굵게 표기한 부분은 해당된 부분을 연구참여자가 강조하여 말했음을 의미한다.

13) A씨는 독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로서 공간적인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바, 한국과 독일의 노동자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이들과, 특히 한국의 여성노동자들과 활발한 연대활동까지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에 부딪치지 않고: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그 간격, 지리상의 간격.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에 있으면서, 독일의, 여기 사회의 다른 모습, 한국하고 비교가 된다던가. 아, 이럴 수도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여성모임들도, 회원들도, 다른 여성모임을 떠나서 여성들도 학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노동자의 위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어: 그렇게 알게 되면서 어: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가 어: 어 (노동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1671-1678)

와15)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간호노동자로서 살았던 삶(1989-2000), 재가노인돌봄센터 기관장으로 퇴임한 이후 독일이주여성단체연합회 이사 및 한국여성모임 대표로서 독일의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인간중심’이 아닌 ‘경제중심’의 노동이주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현 노년기의 삶(2010-)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 참석하니까 그때 간호사 추방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한국여성들, 여성들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었다는 그 자료가 와 있었었고 그러면서 한국 간호사 그: 그: 추방을 위한 서명운동은: 별리고 있는. 거기서도 발표가 됐었어요. 그때부터 나도 서명운동에 참석하고, 어: 이제 그 여성모임에 한국여성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사귀게 됐죠. (...) 에 데리고 서명운동 받으면서 그때 남편도 같이

14) A씨는 개발원조자로 한국에 들어가 일하기 위해 국적을 독일로 바꿨다. 독일국적을 갖고 개발원조자로 한국에서 활동했던 3년간은 A씨에게 제1세계와 제3세계 간 불평등한 관계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 출신의 노동이주자로 독일에서 일을 하였던 때에는 한국에서 취득한 간호사나 양호교사 자격증, 마취 연수 이수증 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독일국적의 개발원조자로 한국에 돌아오자 갑자기 자신이 전문가로 위치 지어졌다. 즉, 한 개인의 능력이 국적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되는 제1세계와 제3세계 간 모순을 체험한 시간이 된 것이다. 또한 개발원조 방식이 현지의 제1세계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은 채 시혜적인 수준에 그치는 한, 현지를 “식민화”할 위험성이 있음을 체험하기도 한 시간이 되었다.

“독일인이 아니라 내가 한국인이었으니까. 나, 나 개인에 대해서 참 오묘한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한국에서, 독일에서, 한국에서 정말 간호, 간호사, 전문 자격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으면서 마취사 교육도 받고: 양호교사 교육도 받고 하면서, 자격, 전문교육을 가지고 와서 여기오니까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정말 아: 최 말단 일을 시켰었거든요. 물론 언어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해서: 어: 나는 거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어: 뭐죠? Diskriminierung(차별), 차별대우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근본, 구조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그: 그거를 그렇게 했어서, 외서는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밑에서 그냥 어: 일을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제 똑같은, 내가 한국으로 가니까, 내가 이제 어: Entwicklungshelferin(개발원조자)이 된 거예요. 전문 Fachkraft(전문인력)로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서는 그 내가, 나의 그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할 일자리라던가 나의 전문자격을 당장 인정해서 일하도록 인정하더라고요. 이거는 나 개인에 연결된 거지만, 난 거기에서 이제 식민, 식민주의 제1세계, 제3세계, 그걸 내가 그 관계를 내가 내 속에, 나를 통해서 완전히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를 그때 느꼈었던 거예요.”(1564-1582) “외국에서 일하고 온 사람들이 어: 와서 돌아와서 그 피드백 한 그거. 그 결과로서 어: 어: 외국 개발원조를 나가서 하지만 결국은 어: 개발정책이 사실 뻔하잖아요. 가서 돈 주고는 우리 일하고, 독일 돈은 쓰고 독일, 독일 꺼 가지고 오는 그, 그 모순을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독일 자체, 독일이 사실은 개발, 개발국이다. 어? 독일 안에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라던가. 아니면 정치 나가는 거. 그니까 외국인들 여기서는 뭐 전문가라고 다들 제3국으로 보내지만, 제3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거는 자원을 우리가 같이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아직까지도 식민지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완전히 배려하지 않느냐”(3929-3938)

15) 한국에서 돌아와 간호노동자로 재취업하기 전, A씨는 출석하지 않고도 학업이 가능한 개방대학교에 들어가 사회과학과 교육과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논문의 내용보다는 문법을 지적하는 교수의 지도 방식에 실망하여 포기하였는데, 이는 삶의 내용과는 괴리된 형식을 중시한 대학교육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험한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지도교수가 뭐 이렇게 평가해서 보내면 내용적으로 평가도 좋지만 어떤 한 교수는 꼬옥: 내 문법 교정까지 해서 보냈다고.”(2530-2531) “나는 직접 생활에서 배우는 게, 그게 내 그거, 그걸 하면서 음: 그 당시는 몰랐었는데, 하면서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일을 하면서 보람되게 일을 하고, 재미있게 일을 하고 많이 배우면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 그게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 직업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일을 했어요.”(2540-2543)

에 데리고 서명운동 받는 데 같이 나가고, (...) 아: 이리이러한 불의에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이 있으니까, 아: 저: 해야 된다는 그, 그거는 그냥 나온 것 같아요.”(654-666) “어떻게 해서 한국 간호사들이 독일에 오게 되고, 그 정치적 뒷배경은 뭐고, 한국의 뒷배경은 뭐며, 독일의 뒷배경은 뭐고, 이, 이게 세계적인 맥락에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런 공부들: 하는 사이에,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C 방식에 똥물사건이 나가지고 우리가 C방식 음: 음: 서명운동, 또 연대, 노동연대운동도 같이 서명운동 하면서 벌렸거든요. 하는 사이에 그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뭐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서명운동을 하면서, 이 독일사회에 가서 여론화 하면서, 우리가 몸으로 때웠잖아요, 어: 그 방법으로 이 독일사회에 이걸 여론화 하자.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그 전에 한 공부가 도움이 되죠, 한국간호사들이 온 거는 아: 정말 한국의 그 우리가 정말 돈이,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걸 떠나서도 한국, 한국사회가 이리이러했기 때문에 된 거고, 독일에서는 독일 상황이 이리이러한 곤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와서, 여기 와서 도움을 주는 거고, 우리가 여기 와서 저: 구걸하러,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여기에, 오히려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1330-1346) “이제 D에 살고 있는데, 아: 그때 아: 같이 있던 우리가 항상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갔다 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암: Entwicklungshilfsdienst(개발원조단), Entwicklungshilfsdienst라고 하는 거기가 한국에: 어: 자리가 있는데, 내가 갈 용의가 있느냐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결정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나는 아, 난 하겠다. 해가지고서는 그게 한 준비하는 데 2년 걸렸었어요, 세미나도 가야 되고, 어: 교육도 받아야 하고, 어: 어: 그래서 84년도에, 한국서 우리가 오고 나서 3년 후에 그 결정하고 나서, 84년도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근데 가게 되는 경위가 어: Project를 내가 맡았어요, 남편은 Begleitende Person(동반자)이라고 해서 가서 후속, 후속 그 Projekt(프로젝트)를 하는 걸로 되고, 어: 어: 그리고 음: 3년, 그래서 가서 일, 일을: 하고, 어: 가서 일하면서도 이제 뭐: 참: 경험 많았죠((웃음)), 우리가 서울 가지 않고 (...) E, E면: 읍에서 더 들어가는 시골에 가서 살았어요, 가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은 많았었지만, 우리가 F읍에다가: 하나 집, 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읍에, 읍에 뭐 새 마, 새 마을 집에 할 것이냐, 아니면 더 들어가서 산골짜기, 산골에 할 것이냐, 거기는 토담집이었어요, 우리가, 우리는 이왕 토담, 토담집에 들어가서 농민들하고 같이 살겠다, 그래가지고.”(1007-1028) “녹색당 사람들 사겨서 어: 거기서 같이 좀 일을 하고, 남편도 한동안 같이 열심히 일하고, 그 여기 뭐 출마도 하고 정치활동 하다가, 암: 다시 탈퇴했고, 정당, 정당활동, 정당활동 하다가 탈퇴한 게, 어: 녹색당이 어: 그 당시에 저 Bosnienkrieg(보스니아 전쟁), 거기 여행, 전쟁, 전쟁에 찬성했을 거, 자기는 평화주의자기 때문에 전쟁에 찬성하는 정당에서는 일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나오고, 나도 정당에 들어가 있다가 나는 더 늦게, 더 늦게 에: 나오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어: 참 와서 이제 여기서 사귄 사람들은 녹색당에 일하던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뿐이에요, ((웃음))그리고 이제 신문에 딱 보니까 어: 그 저: 교회 어떤, 어떤 방을 빌려서 여기에서 여성, Frauengruppe(여성단체)가 모인다고 기사가 났더라고, 나는 또 거기 찾아가서, 어: 어: 여성모임 여서 뭐하느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근게 여기 와서 그 그 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3992-4003) “얼마 전에 여기 한국 어: 한 기관에서 일한 사람이, 여기 노조 Verdi(독일노동조합연맹), 노조 그: 총: 뭐죠? 종합센터, 제일 중앙노조, 중앙에서 어: 내년이, 내가 생각하기로 올 텐데, 내년이 공식적으로 한국 간호사가 한국에 온, 독일에 온지 60년이 된대요, (...) 60년 그: 행사를 하자, 근데 행사를 하는데, 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술적인 분야도 넣고 그렇게 하지만, 제일 중점은 이 독일 엄: 정부에 어: 의료인 정책, 지금, 지금, 지금도 일부 어: 어: 중국 사람들 데려오고, 그 전에 필리핀에서 오고 인도에서 오고, 또 어: 한동안 폴란드, 폴란드가 이리 들어오기 전에 폴란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항상 썬 노동력 자기네들: Ausbildung(수련교육)하는 그: 그걸 절약하

기 위해서.싼 노동력을 어: 불러들이는 그게 60년 동안. 우리가 올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하고 있는 이, 이 일을. 이에 대한 암: 어: 뭐라고 그러죠? 여기의 방안을 평가, 비판, 그런 행사를 하자,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성모임에서도 어: 관심이 있느냐고. 그래서 아: 내가 당장 당연히 있죠. 우리도 25년 됐었을 때 우리가 행사를 크게 했었다고.”(2758-2793) “이주 정책이 어: 근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오는 이주민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한 경제: 어: 그냥 노동인력으로 어떻게 노동력, 경제적인 안목에서만 봐서 이 사람들이 이 독일경제에 어떤 필요가 있고 기여를 하는가, 그에 따라서 이주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금까지.”(2836-2838)

요컨대, A씨의 삶 속에서는 기존의 노동자에 끊임없이 균열을 일으키며 새롭게 탈영토화 한 또 다른 노동자-되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시 또 이러한 노동자를 넘어선, 기존과는 또 다른 방식의 노동자-되기가 현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이주자-되기’

A씨의 이주자-되기는 “자기의 사슬을 느끼지” 못한 채 정주하여 살고 있는 ‘불박이 원주민’으로부터 탈주하여 ‘이방인’이 되고, 또 다시 그 이방인으로부터도 탈영토화 하여 ‘이방인-되기’가 되며, 이후 이방인에게만 허용된 “자유공간(Freiheitsraum)”을 누리기까지 하는 ‘경계인-되기’의 유동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1) ‘불박이 원주민의 탈영토화’

A씨의 ‘불박이 원주민의 탈영토화는 어른과 출세자 등으로 상징되는 다수자의 규범에 따라 질서화된 일상생활 속 미시권력의 “사슬”에 묶인 “부자유한” ‘불박이 원주민’의 삶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노동자-되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른과 출세자 등으로 표상되는 다수자의 표준적인 기준 및 이에 영향을 받아 내재화한 A씨 자신의 출세자 지향의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작동된 미시권력의 “사슬”에 묶인 채 “부자유하게” 살아야만 했던 불박이 원주민의 삶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주한 불박이 원주민의 삶은 탈영토화 해야 할 A씨의 주된 인생과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독일에 이주해올 때까지 예의 그 부모의 “아들”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의의식’에 따라 ‘고향’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테두리 내에서만 정주하여 살아야 했던(Cho-Ruwwe, 2011: 32) A씨에게, “사슬”에 묶인 “부자유한” 그 불박이 원주민의 삶은 그 “고향”이 강요한 측면도 있었다. 즉, A씨가 탈영토화 해야 할 대상은 “고향”의 “담임선생님”과 이웃집 “어떤 남자”로 표상된 어른인 불박이 원주민의 다수자(성)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향”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국경까지도 넘어 미지의 세계인 독일로 이동한 것은 이러한 불박이 원주민을 탈영토화 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었다. 즉, 독일 이주는 불박이 원주민을 탈영토화하는 생애사적 탈주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불박이 원주민의 다수자(성)로부터 탈주할 때만 해도 한국과 독일의 협약에 따라 단기노동이주만

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단기노동이주는 미지의 세계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 3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안도감, 단기간에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자부심 등의 특권 의식에다 젊은이의 용기가 버무려져 단행된 생애사적 사건이었다. 특히, 미지의 세계와 문화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 크게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독일 간호사의 위치가 국제적 수준에 못 미치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돌아와 간호사로 복귀한다 해도 그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양국 간 간호사 위치의 차이에 대한 앞서 독일에 간 친구들의 정보를 접하였지만, A씨의 이주 결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Cho-Ruwwe, 2011: 32-33).

(2) '이주자 되기'

A씨의 이주자-되기는 낯선 문화에 묶여 "정신적인 감옥생활"(조루베국남, 2014: 48)을 해야 했던 이방인의 삶으로 시작하여, 이러한 이방인으로부터 탈영도화 하여 독일과 한국이라는 두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된 '이방인-되기'의 과정을 거치며, 이후 이방인에게만 허용된 "자유공간"을 발견·누리기까지 하게 된 '경계인-되기'의 유동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① '이방인'

독일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A씨가 체험한 초기의 이주 생활은 도무지 소통이 불가능한 "망망대해"에 수영할 줄도 모른 채 뛰어들 것만 같은 속수무책의 삶이었다. 독일이라는 "망망대해"에 뛰어들어 이방인으로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과 무기력감에 떨어야 했던 생활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일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밤에는 독일어 단어를 외우고 낮에는 밤새 외운 독일어를 시험해보는 직장생활을 하였다. 그러자 어느새 "물장구질"이라도 치는 정도가 되었고, 차츰 "독일이라는 망망대해도 헤쳐 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마치 귀와 입이 뚝뚝 뚝인 "정신적인 감옥생활"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듯 하였다(Cho-Ruwwe, 2011: 33; 2014: 45-48). 그리고 마침내 3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무렵엔 독일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이제 3년 지나니까 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독일어를 구성, 구사를 할 수 있는데."(474-476)

그러나 소통능력이 향상된 것과는 별개로 이방인이라는 의식은 여전히 A씨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주 초기의 이방인 의식이 소통능력이 부재한 것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면, 이때의 그것은 테두리 안에 정주하는 국내자(局內者)의 반대항으로 분류된 국외자(局外者)가 갖는 소외감 같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귀국을 택하는 대신, 예의 그 교육복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세자 지향의 삶을 이어나간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주경야독(1974-1977)에 결혼(1976)과 출산(1977)까지 겹치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A씨는 대학진학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졸업(대학입학 자격) 시험이 끝나갈 무렵인 1977년, 백일도 안 된 아들이 갑자기 아팠고, 곧 이어 자신도 갑상선항진증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의사는 갑상선항진증이 A씨가 "고향상실증"에 걸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A씨는 "내 영혼을 정확히 꿰뚫은" 진단이었다고 하였다

(Cho-Ruwwe, 2011: 35). 첫 계약기간엔 독일어를 배우느라, 그리고 베를린으로 이동한 후에는 주경야독에 가정까지 일구어 다중역할을 수행하느라, 독일은 택하고 한국은 놓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오류에 대한 인식은 대학에 들어가 강단식 지식을 배우는 출세자 지향의 삶을 거부하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살아있는 지식', '삶 그 자체'를 공부하기로 결정한 이후, 재독한국여성모임 가을세미나(1977)에 참석하여 모국어로 토론하고 교제하는 경험을 통해 보다 확고해졌다. 이때 A씨는 지난 7년간 자신에게 낯선 것으로 다가온 독일의 세계에 친숙해지기 위해 과도하게 몰두하는 동안, 정작 자신에게 친숙한 한국의 세계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친숙한 언어, 유희, 웃음, 사람들과의 교제가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독일 세계에 몰두한 지난 삶 속에는 이 모든 친숙한 한국의 세계가 매우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였던 것이다(Cho-Ruwwe, 2011: 36). 그러나 당시의 A씨는 여전히 두 세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이방인에 불과하였다.

② '이방인의 탈영토화', '이방인-되기'

따라서 이후의 삶은 이방인으로부터 탈영토화 함으로써, 두 세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실험하는 생활로써 이어졌는데, 이때 두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잡도록 평균대가 되어준 것이 재독한국여성모임이었다. 1977년 가을세미나에 참석하여 재독한국여성모임을 처음으로 접한 이후, 한인간호사의 강제귀국 조치에 저항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고, 재독한국여성모임이 주관하는 이주노동자나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다양한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독일과 한국의 여러 관련 단체와 연대하는 연합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사회운동가로서 살았는데, 바로 이러한 재독한국여성모임을 통한 활동이 소외된 이방인의 삶이 아닌, 두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중심을 잡고 두 세계를 구성해나가는 '이방인-되기'의 과정이 되도록(Cho-Ruwwe, 2011: 36; 조루베국남, 2014: 51-58) 추동하였던 것이다. 특히, 14년간의 독일생활 후에 개발원조자로 3년간 한국생활(1984-1987)을 하고 돌아와 다시 독일사회에 재적응하는 이주생활(조루베국남, 2014: 57-58)은 "꼭에서의 출타기"(조루베국남, 2014: 57)와 다름없는 고군분투의 이방인-되기의 과정이 되었다.

③ '경계인-되기'

앞서의 이방인-되기가 두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중심을 잡고 서 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의 과정이었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다른 '경계인-되기'는 이방인에게만 허용된 "자유공간"을 발견하여 "자유"(조루베국남, 2014: 59)를 누리기까지 하게 된 과정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계인-되기는 실상은 "정신적인 감옥생활"로 의미부여 된 이방인으로 살았던 이주 초기에도 일정 부분 수행되었고, 이방인으로부터 탈영토화 하여 이방인-되기가 이루어졌던 거의 전 이주생활 과정에서 끊임없이 수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유공간"에 대해 확고하게 깨닫고 "자유"를 누리기까지 하게 된 것은 "몇 십 년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한 아래의 인터뷰텍스트에서 보듯,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계인-되기는 특히 이주생활 전 과정에 걸쳐 천착한 "고향(Heimat)"의 의미를 재해석한 과정에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A씨가 재해석한 "고향"은 지리적인 개념에 기초한 이분

법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자신 “안의 영혼”으로 함께 흘러, 생활공간과 생활시간 간 분리가 경계 없이 무너진, “바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 곳, 나의 현실, 나의 삶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향” 재해석에 이른 A씨가 의미부여한 자신은 “독일과 한국, 두 곳 모두에 속하는 동시에 두 곳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이며, “한 곳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곳 모두를 포괄하는” 독특한 존재이다. 일체의 부자유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Cho-Ruwwe, 2011: 40; 조루베국남, 2014: 59), ‘초국적 공간’에 위치한 경계인-되기의 과정에 있는 ‘초이주자(Transmigranten)’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인-되기는 이방인으로서 발견한 “자유공간”에서 “낮설게 있을 자유(Freiheit fremd zu sein)”(조루베국남, 2015: 1789)를 누리며 주류사회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늘 “처음처럼 새롭게”(조루베국남, 2015: 1838) 시작하는 유동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의 그 사슬, 사슬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그게 그만큼 알아채는 건 아픈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내가 나를 많이 알게 된다고, 그걸 알아채니까 이게 뭔가, 왜 이런가 묻게 되고: 그래서 움직이는 그 자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주: 이주 그 자체.”(1781-1784)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또 자유가 있어요, 그거는: 음: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Konvention(관습), 규범, 가치관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모르는 상황에서 어림처럼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 그 그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나도 아:주 몇 십 년 후에야 아: 나한테도 그런 공간이 있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공간을: 음: 그게 나한테 힘이 됐다는 생각을 들더라고, 독일말로 해서 어: Freiheitsraum(자유공간), 그 그 그 생각이 어떤 연유에서 왔는가 하면, 내가 나를 항상 물으면서 사실 칼 막스도 항상 그랬잖아요, 모든 회의에, 모든 회의 속에서 그걸 보라고.”(1789-1799)

3) ‘여성-되기’

A씨의 여성-되기는 대다수 동시대 여성들에 의해 이상적인 삶으로 간주된, 남성에게 기대어 행복을 누리는 ‘여성 삶 동화(Märchen)’로부터 탈주하여, 자신의 삶에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유동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1) ‘여성 삶 동화의 탈영토화’

A씨가 지향한 여성 삶은 간호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출세자에 속하는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의 대를 이을 아들과 딸을 낳아 키우며 남편에게 기대어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여성 삶은 대다수 동시대 여성들에 의해 이상적으로 간주된 것으로, A씨 역시 이러한 “고정관념”에 붙잡힌 여성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삶 동화는 실상은 자신이 보아왔던 모의 삶과는 매우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모는 남편에게 기대어 사는 행복은커녕, 구멍가게 운영에 샅바느질까지 하며 8남매를 키워야 했던 “생활력이 강한”(조루베국남, 2015: 2077) 여성이 되어야 했고, 특히 둘째 언니를 홍역으로 잃는 비탄 속에서도 연이어 태어난 아이들을 억척스럽게 길러내야 했던, 모성 깊은 여성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A씨는 모에게 힘이 되는 딸이 되고자 했고, 간호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을 세우기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지향한 여성 삶 동화를 실현하는 생활을 통해 그러한 딸이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간호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이러한 여성 삶 동화의 실행 가능성이 봉쇄된 채 여성노동자의 삶만이 예정되어 있다는 예감에 절망하기도 하였는데, 졸업 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에는 딸(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처럼, 아니 아들보다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때문에 이러한 “아들 노릇” 그 이상을 하는 자신의 ‘만이 역할’ 능력을 부모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A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여성 삶 동화로부터 탈주하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한국사회에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어는 공부 잘했으니까. 그 당시 여자로서 직장 하면, 내가 됐으면 학교 교사가 됐을 거라고, 우리 집안 다들 교사집안들이거든. ((웃음))삼촌, 사촌부터 해서 전부 다. 어: 그: 딸 다섯인데 우리집에 다들 학교 교사로 일하는. 나 혼자서만 그랬거든요. 어: 암: 그니까 그 그 당시 이제 아: Akademiker(학자), 대학, 대학 가서, 대학 간, 대학 가야 출세를 하고, 아까 내 Karriere(경력)가 출세예요, 대학 가야 출세를 하고, 아: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건데, 나는 어: 간호고등학교에 갔으니까 대학 가는 길이 딱 막혔고.”(2556-2564)

이러한 여성 삶 동화로부터의 탈영토화는 독일에 이주하여 간호노동자 생활을 거쳐 대학예비학교에 진학하여 간호사와 학생으로서 주경야독을 하던 때에, 당시의 “시대정신”이었던 “여성해방”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실제적 논의와 더불어 이에 기초한 여성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갔던 생활(Cho-Ruwwe, 2011: 34; 조루베국남, 2014: 49-50)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A씨는 이러한 학습 및 활동을 통해 자신이 한국에서 독일로 취업해온 간호사이며 독일의 한 이주여성노동자라는 위치를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명확히 인식하였고, 이러한 의식화 과정을 통해 “여성해방의 길목”에 성큼 들어서 있다는 긍지를 느끼기도 하였다(조루베국남, 2014: 51-52). 특히, 여성운동을 공부할 때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여권운동가인 Zetkin(1857-1933)의 연설 내용, 즉 “여성의 종속은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노동이다.”라는 주장을 접한 것은 “여성해방의 길목”(조루베국남, 2014: 51)에 들어서 있다는 자각을 할 만큼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한 결정적인 사건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에서 받은 교육,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 그런 사회적으로 받은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여성으로서의 그: 그 위치, 자세, 뭐 규범 그런 그거 전부 다 다시 한 번 음: 간격을 두고 나를 살펴계 된 게. 학교과정에서 시작을 해서.”(903-905)

(2) '여성-되기'

이후, 여성 삶 동화의 탈영토화는 직장과 가정, 사회 등 전 생활세계에서 여성-되기로 이어져, 현재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에서의 여성-되기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동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신념에 따라, 한국생활을 위해 한 차례 무급휴가를 받았던 때를 제외하고는 퇴직(2010)에 이르기까지 거의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유지한 삶을 통해 이루어졌다. A씨는 이처럼 기존의 여성 삶 동화에서 이상화된, 남성애 중속된 여성 삶과는 차이가 나는 주도적인 여성 삶을 위해, 그 여성 삶 동화를 부단히 탈영토화 하였는데, 이는 “여성해방”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의식화가 된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빈곤 속에서 이미 경제적 자립에 대한 가치가 “삶의 지혜”로 자리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나는: 내 직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도 (...) 나한테 경제적인 자립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거는 내가 어릴 때 정말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배운, 어: 배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 그, 그 상황이 나에게, 나에게 처음에는 그게 좀 어: 탁 그: 그: 너무: 엄매여서, 거기에서 내가 해방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나의 삶에: 기본 토대가 되어주고, 어: 지금까지: 나의, 나 삶의 지혜로 그렇게 보거든요.”(1052-1057)

이렇듯 A씨는 여성의 주도적 삶의 가치를 매우 중시한 직업생활을 하였던 바, 자신과 동료들, 특히 독일 내 한인간호사가 수행한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예의 그 여러 사회참여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갔던 것이다.

한편, 가정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여성-되기의 노력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일남성과의 국제결혼을 관철시켰고, 형식에 치우친 결혼식을 거부하고 관청결혼(1976)만을 하였으며, 독일에서도 당시에는 드물었던 부부공동 책임의 가정생활, 즉 경제와 가사, 자녀양육·교육 등을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생활을 개척해나갔다. 이러한 부부공동 책임의 가정생활은 개발원조자로 한국에 들어가 활동하였던 때에 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A씨는 개발원조자로서 지역사회보전 분야 개발 사업을 담당하였고, 남편은 유기농법을 개발·보급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여성이 남편을 벌여 먹인다.’는 이웃의 편견에 갇힌 매서운 시선을 감내해내야 했던 것이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중년기 위기(middle life crisis)’를 혹독하게 치렀다. 그동안 자신의 신념에 따라 부부공동 책임의 가정 중심적 생활을 하며 사회적 지위를 관리하는 데에는 다소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중년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직장 중심의 생활을 하며 높은 지위에 오른 친구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는데, 설상가상 자신보다 나이 어린 직장상사까지 맞으며 상당한 좌절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오랫동안 가정 중심의 생활을 하였던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남편을 위로하는 동반자가 되기보다는, 남편이 자신들의 실험적인 부부공동 책임의 가정생활에 후회를 한다고 오해한데다,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지 못한다는 실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여 “뻗뻗하게 나”가는 행동으로 맞섰다. 결국, A씨 부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별거생활에 들어갔다.

7년간 각자의 삶에 몰두했던 A씨 부부의 별거기간은 서로 자신들을 발견·발전시킨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남편은 오토바이 사고로 6개월 동안이나 입원생활을 해야 했다. 이때 A씨가 남편을 병

문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재회(2005)하게 되었다. 각자 한층 더 성장해 있었고,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서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확신이 선 때문이었다. 이때 상대방의 자립성과 독립성을 상호 존중해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현재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부부공동체 가치로서 지켜나가고 있다. 즉, A씨 부부는 한 지붕 밑에서 시간과 공간, 정신 등을 공유하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살 뿐만 아니라, 각자는 고유한 개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공유하며 각자가 누려야 할 시간적·공간적·정신적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는 새로운 형식의 부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7년 동안 서로 헤어져 살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어: 나는 나대로, 그 7년 동안 헤어져 있으면서 다시 나를 발견하는 기회였어요.”(792-793) “그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어느 날 나서, 전화를, 받고 가서 보니까 그냥 사람이 거의 다 죽어있더라고, 교통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찾아가서, 음: 병원에서 한 6개월을 있었거든요, 병원에 누워있으니 병원에 가끔 찾아가서 이야기 하면서, 다시 또 우리 이야기가 돼서.”(780-783) “(재결합) 조건은,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자립, 공간적인 자립, 내 정신적인 자립, 어: 그거는 내가 조금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깐, 우리가 이거를 놓지, 그리고 너의 자립성, 너의 그것도 존중해 주고 싶으니깐,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하면서, 어: 만날 수 있다면, 하자 그렇게 해서.”(827-830)

재결합 이후에도 남편은 A씨가 퇴임하던 2010년 심장마비가 와 “고비”를 겪었고, 2013년에도 뇌경색이 발병하여 언어장애를 입었다. 그러나 혹독한 재활훈련을 통해 지금은 심리상담가로 활동하는 데에도 거의 제약을 받지 않을 만큼 회복이 된 상태이다.

“5년 전에 심장마비가 생겨가지고, 아파서 수술 받고, 2년 전에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어: 이: 동화구연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됐었어요, 완전히 언어증후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년퇴직하고 나서, 되던 그 해에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지금은 어: 나는 느끼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면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어: 서로 언약했던 거, 정말 서로 자립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다시 옛날에 했던 그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서로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883-893)

그 사이 남편은 교통사고, 심장마비, 뇌경색 등으로 여러 차례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A씨 부부는 그때마다 매번 “마지막인 것처럼 작별인사”를 하였고, 이후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먼 길을 떠날 때와 같은 경우에는 늘 각자 “만족하는 삶”을 살았고 서로에게도 “만족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작별을 고하고 있다. 미래에 다가올 죽음도 수용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는 노년기 부부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 어디든지, 다시 여기 결합하고 나서 각자 떨어져서 먼 길 가잖아요, 내가 여성모임회의 한다고 가고 그러면, 가기 전에 서로 정말 마지막 작별인사 하고 떠났어요, 그만큼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다, 지금도 이제 어디 먼:길 떠나면, 어: 알지, 서로, 아: 나는 지금까지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니깐 그거 너 알고 있으라고((웃음)) 서로, 그러니까 그: 죽

음에 대한 어떤 아: 어떻게. 아: 죽으면 어떻게, 그런 두려움, 내가 어떻게 내가 죽을까, Sterben(죽음) 그거는 그게 있지만. 어떤 죽음이 올 거라는 그거는 항상 기억을 하니까 그걸 기억하면 서.”(3550-3558)

5. 결론

이로써 A씨의 생애는 자신을 식민화 하는 다수자의 표준적인 기준에 균열을 일으켜 탈영토화 하는 노동자-되기, 이주자-되기, 여성-되기 등의 배치체로 구성된 노동이주여성-되기의 과정으로, 이러한 노동이주여성-되기도 끊임없이 새롭게 또 다른 배치체로 구성되는 소수자-되기의 유동적인 과정이며, 차이의 정치, 되기의 정치 과정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해 사회복지실천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실천의 담론 형성에 시사하는 함의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A씨의 생애가 노동이주여성-되기의 유동적인 과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A씨의 고유성으로 분석된 노동이주여성-되기는 기존의 질서를 생산적으로 해체하여 새로운 상태, 존재, 그 어떤 것으로 변이되도록 하는 차이의 정치, 되기의 정치 과정이기도 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이주여성-되기는 들뢰즈·가타리의 되기 이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도출한 것으로,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이나 적응이 아닌 끊임없이 거리두기(간격 유지하기)를 통해 비판적으로 재성찰하는 ‘생애사적 작업(biographische Arbeit)’(Fischer-Rosenthal, 1999; Völter, 2007)을 통해 쟁취되었고, 이러한 결과물 역시 다시 새로운 거리두기(간격 유지하기)를 통해 비판적으로 되묻는 지속적인 생애사적 작업 속에서 구성되는 유동적인 과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자가 다수성을 생산적으로 해체하여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구성하는 고유한 존재로 발전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주자의 적응 담론으로 정착된 통합, 즉 이주국사회와 이주자 간의 쌍방향적 적응의 의미를 갖는 통합 담론도 다수자의 표준적인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위험성을 내포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통합 담론도 거리두기(간격 유지하기)를 통해 비판적으로 재성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이주자의 일방향적 적응을 요구하는 동화(assimilation)는 더더욱 지양되어야 할 이주자 담론임을 환기시키고 있는 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다수자의 표준적인 기준에 의해 작동되는 기존 이주국사회의 질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지원하는 적응 담론에 내포된 일방향적 측면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A씨의 독일 이주가 과거의 빈곤한 가정형편과 연관된 강제적 성격의 ‘때문에 동기’뿐만 아니라, 미래의 개인적인 욕망과 연관된 ‘하기 위한 동기’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동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이주가 가족이나 국가, 글로벌적 차원의 희생자 담론만으로는 환원되지 않은, 행위주체성에 의해 추동된 복합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에 대한 기존의 타자성이 강조된 객체화된 희생자 담론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연구방법에 시사하는 함의이다. A씨의 고유성인 예의 그 노동이주 여성-되기가 차이의 정치, 되기의 정치 과정이 되고 있다는 결과는 내러티브 주체의 행위성에 주목한 내부자적 관점의 생애사적 맥락에 따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희생자 담론만으로는 환원되지 않은, 행위주체성까지도 밝히는 이주여성의 고유성을 분석하는 데에 내러티브 주체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접근한 생애사 연구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이어,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에 시사하는 함의이다. 기존의 이주여성과 관련한 사회복지실천은 주로 희생자 담론에 입각하여, 이주여성을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고 원조의 대상으로 객체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생활세계를 식민화'(Habermas, 2011)하는 문제를 노정했다. 그러나 A씨의 사례는 이러한 식민화 패러다임에 묶인 원조방식이 일부 이주여성의 생활세계에는 도움이 되지는커녕, 행위주체성을 억압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이주여성들과 관련한 사회복지실천이 원조의 식민화 패러다임으로부터 탈피하여, 이들의 행위주체성을 인식·지지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기초한 연대활동으로써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화 패러다임에 묶인 원조방식의 문제는 제3세계에 대한 제1세계의 개발원조정책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바, 이러한 행위주체성을 인식·지지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기초한 연대활동은 제1세계의 개발원조정책에서도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A씨의 고유성인 노동이주여성-되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공간이 있음을 발견하여 국외자이면서 국내자이기도 하는가하면, 국외자도 국내자도 아닌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전 생애에 걸쳐 탐색·쟁취해온 결과물인 동시에, 끊임없이 변이 중에 있는 유동적인 과정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는 이주민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공간에 위치한 이들의 독특한 고유성을 발견·지지하는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교육이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며, 또한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 교육에 기초한, 이들과 연대하는 문화적 다양성 기반 사회복지실천이 이주여성들과 관련한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셋째, 아이(소수자)였던 A씨의 시선에 잡힌 일부의 어른은 이중적인 다수자로서 반면교사의 전형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는 아이(소수자)의 시선이 어른(다수자)의 이중성을 발견·바로잡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다수자 담론을 재생산·확대하는 사회학습이론(다수자 중심 이론)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은 제고되어야 하며, 어른(다수자)의 이중성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질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는 아이(소수자)의 시선에 주목한 아이(소수자)-되기 기반 사회복지실천이 매우 요구됨을 촉구하고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A씨는 개인의 안위가 우선인 출세 지향적 삶을 탈영토화 하여 자신의 위치를 몰적인 차원에서서는 물론 분자적인 차원에서도 명확히 인식하는, 오랜 세월을 걸친 생애사적 작업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을 발견·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핵심 추동력은 노동자, 이주자, 여성 등의 소수자와 연대하는 조직 활동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는 사회·문화적 소수자와 연대하는 이주여성의 문화적 다양성 역량에 주목한 증범위·거시적 사회복지실천이 매우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다.

다섯째, A씨의 노년기에는 한 한인여성모임의 대표로서 이주여성연합단체 및 노동조합연합단체와 연대하여 195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독일의 경제중심의 노동이주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간중심의 노동이주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는 경제중심의 노동이주정책이 인간중심의 노동이주정책으로 보완되도록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이주여성들의 자생적 조직화 능력을 발견·연대하는 증범위·거시적 사회복지실천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여섯째, A씨에 의해 환기된 이주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공간은 낯설게 있을 자유가 보장된 그 어떤 곳으로, 고유성을 발견·발전시키는 데에 매우 생산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는 낯설게 있는 것 자체를 부적응으로 보고 개입하는 기존의 정주자 관점의 사회복지실천으로부터 탈피하여, 이주자의 고유성을 이해하는 당사자 관점의 사회복지실천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일곱째, A씨는 자신과 부부, 사회 등과의 관계에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거리두기(간격 유지하기)를 통해 그 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그 성찰의 시간을 거쳐 비로소 기존의 가족관계나 사회관계와도 다른 차이성을 동력으로 하여 새로운 관계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거리두기(간격 유지하기)를 통한 새로운 관계형성 역량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획득되었다기보다는, “참 인생 공부”의 장이 되었던 학교에서의 의식화 교육 및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삶을 통해서 학습한 살아있는 지식의 축적을 통해 생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는 거리두기(간격 유지하기)를 통한 새로운 형식의 관계형성 역량에 주목한 사회복지실천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년기 위기에 처한 남편에게 지지적 동반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직된 거리두기(간격 유지하기)를 통해 비판자가 된 것이 별거로 귀결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거리두기(간격 유지하기)의 관계형성이 사랑과 신뢰에 기반을 둔 유연성을 확보할 때에만 새로운 형식의 관계형성 역량을 갖추는 데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여덟째, A씨 부부는 각자 거의 전 생애에 걸쳐 유지하고 있는 자립적·연대적 가치관이 과거를 재성찰하는 것은 물론 현재 또한 책임 있게 살아가며, 다가오는 미래의 삶과 죽음도 수용할 수 있는 자아통합이 이루어진 노년기가 되도록 추동하고 있고, 이러한 자아가 통합된 노년기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대처하는 유능성(Kompetenz)도 부부의 일상생활 속에서 심분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노년기 자아통합 및 죽음 준비 혹은 대처 유능성은 전 생애에 걸친 생애사적 작업이 습관화된 생활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아가 통합된 노년 및 ‘웰다잉’을 준비하는 노년을 동반·지지하는 ‘생애사적 작업’(Völter, 2007) 혹은 ‘생애사작업(Biographiearbeit)’(Miethé, 2011) 기반 사회복지실천¹⁶⁾은 매우 요구된다 하겠다.

16) ‘생애사적 작업’ 혹은 ‘생애사작업’ 기반 사회복지실천은 각 개인이 자신의 과거 생애사를 성찰하여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관점이자 방법이다(Völter, 2007; Miethé, 2011). A씨 부부는 별거 후 각자 ‘생애사적 작업’ 혹은 ‘생애사작업’ 상담을 받으며 서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재회하였고, 이번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및 의사소통적 타당화 과정도 ‘생애사적 작업’ 혹은 ‘생애사작업’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생애사적 작업’ 혹은 ‘생애사작업’ 기반 사회복지실천이 지향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에 시사하는 점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유능성을 인정하는 바, 연구참여자를 연구계획부터 결과물 간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따라서 질적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데이터의 전달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사고할 수 있는 연구주체로, 공동연구자의 성격을 띤다(Mayring, 1990). 그러나 IRB 절차를 거치는 등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고 의사소통적 타당화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연구참여자는 실질적으로 공동연구자로 기능하기보다는 연구자에 의해 “해부되는” “실험용 토끼(Versuchskaninchen)”¹⁷⁾가 될 위험성¹⁸⁾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적 타당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본 연구에서처럼 연구참여자의 요구로 일부의 연구결과는 제시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는 연구참여자의 권리,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옹호할 연구자의 의무,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연구자의 의무가 서로 상충되는 지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점으로, 본 연구에 제기하는 윤리적인 과제에 그친다기보다는, 경험적 연구 전반에 해결을 요구하는 매우 중대하고도 시급한 윤리적 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광명, 2005, “예술에서의 고유성과 보편성 - 예술의 보편적 고유성을 위한 시론-”, 『미학』, 44: 35-62.
- 김명주, 2009, “‘육망’ 개념을 통해서 본 들뢰즈 철학의 의미”, 『철학논총』, 57: 31-50.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민정, 2007,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지방 사회의 필리핀 아내”, 『페미니즘연구』, 7(2): 213-248.
- 김영옥, 2010,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다’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4: 31-64.
- 김용찬, 2007, “여성노동자 국제 이주와 이주 수용국가에서의 조직화의 관계 연구: 한인 여성노동자의 독일이주와 조직화 사례 분석”, 『社會科學研究』, 15(3): 182-216.
- 김은주, 2014, “들뢰즈와 가타리의 되기 개념과 여성주의적 의미”, 『한국여성철학』, 21: 95-119.
- 김재인, 2015, “여성-생성, n개의 성 또는 생성의 정치학 - 들뢰즈와 가타리의 경우”, 『철학사상』, 56: 215-237.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103.
- 김현미·김민정·김정선, 2008, “‘안전한 결혼 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24(1): 121-155.

17) “해부되는” 그리고 “실험용 토끼”라는 매우 도발적인 용어는 본 연구참여자가 양적 연구자들과의 선경험에 기초하여 경험적 연구자들 대부분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본 연구의 인터뷰에 응할 때부터 의사소통적 타당화 작업에 이르기까지 전 연구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지적하는 부분이다.

18) 특히 연구참여자의 개인사와 가족사가 핵심 분석자료인 생애사 연구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 김현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Home) 만들기: 문화 접경시대 번역자로서의 이주여성”, 『Comparative Korean Studies』, 18(3): 145-174.
- 김효, 2008, “들뢰즈/가타리의 ‘되기’ 이론으로 살펴 본 장 주네의 〈하녀들〉”, 『한국연극학』, 36: 227-262.
- 나혜심, 2009, “한인여성간호노동자의 독일이주와 한인가족 내 여성의 역할”, 『여성과 역사』, 11: 43-74.
- 양영자, 2010, “재독한인1세대 여성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323-351.
- _____, 2011, “결혼이주여성의 에이전시에 대한 생애사적 재구성”, 『비판사회정책』, 33: 141-194.
- _____, 2012, “이주여성의 생애사에 재현된 젠더의 구성과정 -재독한인여성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2): 325-354.
- _____, 2013,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 -재독한인노동이주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1): 271-298.
- 유재홍, 2007, “들뢰즈와 현실”, 『진보평론』, 3: 208-223.
-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189-219.
- _____, 2006, “지구화와 이주과정에서 발현되는 문화혼성성 -재독 한인여성과 재한 외국인여성의 문화 적응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6(2): 191-228.
- 이효선·김혜진, 2014, “생애사 연구를 통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삶의 재구성: 파독간호사 단일사례 연구”, 『한국여성학』, 30(1): 253-288.
-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이희영, 2005, “사회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재독한국여성모임, 2014, 『독일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서울: 당대.
- 조루배국남, 2014, “내 정체성의 또 다른 이름, 이주여성”, 재독한국여성모임 편, 『독일이주여성의 삶. 그 현대사의 기록』, 서울: 당대, 37-59.
- 황정미, 2009,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연구』, 9(2): 1-37.
- Cho-Ruwwe, K-N., 2011, “Chrysanthemenjunge”, 29-40, in *Zuhause. Erzählungen von deutschen Koreanerinnen*, edited by Koreanische Frauengruppe in Deutschland, Berner, H., and Choi, S. J., Berlin: Assoziation A.
- Constable, N., 2003, *Romance on a Global Stage: Pen Pals, Virtual Ethnography, and “Mail Order” Marriag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ischer-Rosenthal, W., 1999, “Biographie und Leiblichkeit. Zur biographischen Arbeit und Artikulation des Körpers”, 15-43, in *Biographie und Leib*, edited by Alheit, P., Dausien, B., Fischer-Rosenthal, W., Hanses, A. and Keil, A., Gießen: Psychosozial-Verlag.
- Freeman, C. 2005, “Marrying up and marrying down: The paradoxes of marital mobility for chosonjok brides in South Korea”, 80-100, in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edited by N. Constabl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abermas, J., 201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II: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8. Aufl.,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 Hochschild, A. R., 2000, "Global care chain and emotional surplus value", 130-146, in *On the Edge: Living with Global Capitalism*, edited by Hutton, W. and Giddens, A., London: Jonathan Cape.
- Honneth, A., 2012, *Kampf um Anerkennung. Zur moralischen Grammatik sozialer Konflikte*, 7. Aufl., Frankfurt am Main: Suhrkamp.
- Koreanische Frauengruppe in Deutschland, Berner, H., and Choi, S. J., 2011, *Zuhause. Erzählungen von deutschen Koreanerinnen*, Berlin: Assoziation A.
- Mayring, Ph., 1990, *Einführung in die qualitative Sozialforschung*, München: Psychologie Verlags Union.
- Miethe, M., 2011, *Biografiearbeit. Lehr- und Handbuch für Studium und Praxis*, Weinheim: Juventa.
- Parreñas, R. 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Rosenthal, G., 1995, *Erlebte und erzählte Lebensgeschichte: Gestalt und Struktur biographischer Selbstbeschreibungen*, Frankfurt am Main: New York: Campus Verlag.
- _____, 2009, "Die Biographie im Kontext der Familien- und Gesellschaftsgeschichte", 46-64, in *Biographieforschung im Diskurs*, edited by Völter, B., Dausien B., Lutz H., and Rosenthal, G., 2. Aufl., Wiesbaden: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_____, 2011, *Interpretative Sozialforschung: Eine Einführung*, Weinheim und München: Juventa Verlag.
- Sassen, S., 2000, "Women's burdens: Counter-geographies of globalization and the feminization of survival",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3(2): 503-524.
- Schütz, A., 1971a, "Das Wählen zwischen Handlungsentwürfen", 77-110, in *Gesammelte Aufsätze: Bd. 1, Das Problem der sozialen Wirklichkeit*, Den Haag: Martinus Nijhoff.
- Schütz, A., 1971b, "Die soziale Welt und die Theorie der sozialen Handlung", 3-21, in *Gesammelte Aufsätze: Bd. 2, Studien zur soziologischen Theorie*, Den Haag: Martinus Nijhoff.
- Thai, H. G., 2005, "Clashing dreams in the Vietnamese diaspora: Highly educated overseas brides and low-wage U.S. husbands", 145-165, in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edited by Constable, 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Völter, B., 2007, "Rekonstruktive Methoden als Prozessstruktur. Anleitung zum biografischen Arbeiten in einer Organisation der politischen Jugendarbeit", 193-204, in *Fallverstehen und Fallstudien. Interdisziplinäre Beiträge zur rekonstruktiven Sozialarbeitsforschung*, Bd. I. Rekonstruktive Forschung in der sozialen Arbeit, edited by Giebeler, C., Fischer, W., Goblirsch, M., Miethe, I. and Riemann, G., Opladen: Farmington Hills: Verlag Barbara Budrich.
- Yang, Y. J., 2014, "Die biographische Perspektive der Anerkennung am Beispiel einer koreanischen Krankenpflegerin", 96-117, in *Prekarisierung transnationaler Carearbeit: Ambivalente Anerkennung*, edited by Krawietz, J. and Visel, S.,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Life Experiences of a Korean Woman in Germany -‘Becoming-Work Migrant Woman’-*

Yang, Yeung Ja
(Kyungnam University)

The research intends to analyse the life experiences of a Korean woman in Germany from the insider's view. Biographical data of A are analysed using Rosenthal's narrative-biographical interviews method. Findings show that the life of A is in the process of 'becoming-work migrant woman', who jolts and 'deterritorializes' standard criteria of 'majority', which her colonize. Furthermore is analysed, that the 'becoming-work migrant women' as the construction of assemblage of 'becoming-worker', 'becoming-migrant', 'becoming-woman' is the fluid process of 'becoming-minority', which constructs constantly another assemblage of them, and is also the 'politics of difference' and the 'politics of becoming'.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practice are suggested.

Key words: migrant women, Korean women in Germany, Korean nurses in Germany, biography, biographical research, Deleuze and Guattari, becoming

[논문 접수일 : 15. 12. 18, 심사일 : 16. 01. 26, 게재 확정일 : 16. 02. 12]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5S1A5A2A01011690).